

# 체류 인구 11.8배 · 고용률 76.3%

## 무주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략 성과

무주군이 체류 인구 증가와 고용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략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체류 인구 배수 산정 결과,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에 올랐으며 전국 순위에서도 10위권(8~9위)에 진입했다. 체류 인구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를 의미한다.

무주군은 2024년 9월 전국 11위로 1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7·8·9월 모두 10위권에 안착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8월 체류 인구는 28만여 명으로 등록 인구

대비 11.8배를 기록했다. 7월에는 21만여 명(8.8배), 9월에는 17만여 명(7.4배)으로 집계되며 관광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표 분석 결과 음식·숙박·문화·여가 중심의 관광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업 분야 체류 인구의 평균 소비액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고용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무주군의 고용률은 76.3%, 경제활동참가율은 76.3%로 집

계해 2025년 상반기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郡) 지역 중 1위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0.1%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전국 군 지역 평균 고용률(69.3%)보다 7.0%p 높은 수치다. 특히 15~64세 주민 고용률(OECD 기준)도 79.3%를 기록해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주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병행해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왔다.

/무주=손홍기 기자

##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화 속도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공식 요청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의 요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군은 제도의 적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 검토를 받게 된다.

군은 그간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모습.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 추진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에 이

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며 제도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시행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열린 제38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김광훈 의원은 '기후변화적응 선택적불제' 시범사업 유치와 장수형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명품사과 분고장 장수의 명성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일반지'로 도약하기 위한 장수형 농업 혁신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에서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실사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5건에 1억 6,240만 2천원은 감액하고, 감액금액 6,240만 2천원은 일반예비비로, 1억원은 재년에 비비로 증액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63억원 규모로 인구유입 기반 강화를 위한 SOC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부담부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실사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국도 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선형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개최

### 장수군 스마트팜 지원센터서 개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현장 견학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가 지난날 26일 장수군 스마트팜 지원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4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최훈식 장수군수 등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건의 사항들에 대한 회신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총 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민선 8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한전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사업 정부 대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건의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심의된 안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열리는 시·군의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의 시간도 가졌다.

여기에 회의를 마친 후에는 장수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해 장수군 스마트

농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농업인 육성과 미래농업 전환 전략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간 긴밀한 협력과 경험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현을 협의회장은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하는 막중한 협의회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장·군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14개 시·군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지역의 현안을 다 같이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6월 30일 임기를 마치는 시장·군수에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향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이 같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도 26호선 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선형개량 국가계획 반영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국도 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선형개량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출성 진안군수는 "완주 소양에서 진안 부귀 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연속된 대표적인 선형불량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물론,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건의 안전을 설명했다.

전북 동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

도로인 국도26호선 해당 구간은 관광·물류·생활권 이동의 주요 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선형이 불량해 통행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날 모인 시장·군수들은 "단순 경계선 논리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34회 물 관리 심포지엄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날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 부영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예산 절감 성과 등을 인정받아 선정의 영광을 누렸다. 이번 행사는 환경타임즈, 환경방송GKBS, 상하수도신문이 주관하고 국회물포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경관단 등이 후원해 진행했으며 전국 물 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79억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율을 향상시키고 맑은 물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437억 원 규모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상수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노후 시설 개선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공급 안정성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해빙기를 맞아 농업기반시설물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표면 해빙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저수지 제방 누수, 옹벽 및 사면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점검과 함께 사고 예방 홍보를 병행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과 점검 방법은 농업기반시설물 203개소와 급경사지 10개소로, 2월 23일부터 2주간 무진장지사 23명은 2인 1조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이어 3월 9일부터 2주간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